보건복지 ISSUE & FOCU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363호 (2019-06)
발행일 2019. 06. 10.
ISSN 2092-7117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1인 가구 포함에 따른 소득분배 동향과 특징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

- 이 글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가 포함되고, 가구원 수가 통제될 경우 소득분배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분석함.
- 분석 결과, 2인 가구 이상을 보면 소득 1분위 소득은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소득 1분위의 소득은 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가구균등화지수와 1인 가구가 포함될 경우의 소득 1분위 소득은 0.4%가 줄어들고 있어, 분석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소득 1분위의 특성을 분명히 보여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1인 가구가 포함되어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함. 소득 1분위에서는 고령층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를 점하고 있음. 최근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소득 1분위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1. 들어가며

■ 2018년은 소득과 관련되어 두 가지 측면에서 대별되는 일이 있었던 해로 기억될 수 있음.

○ 긍정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점은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가 되었다는 점임.

○ 부정적 측면은 2018년 5월 발표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분기별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소식임.

- 통계청 발표에서 2018년 1분기 전체 소득은 전년 동 분기 대비 3.7% 증가하였지만, 소득 1분위 계층은 8.0%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임(통계청, 보도자료, 8. 23. 참조). 반면에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는 소득이 9.3% 증가하여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지적이었음.

■ 그렇다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분위별 자료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동향을 정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첫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 가구 구성에서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둘째, 소득과 지출은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가구원 수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 5분위를 산출할 경우, 1~2인 가구가 저소득 분위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가 포함되고 가구원 수가 통제될 경우 우리나라 소득분배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함.[1)]

○ 1인 가구가 제외된 분배 현상은 정부가 사회안전망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족한 정보하에서 사회안전망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전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기준을 토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1인 가구 포함 소득분배 현황

가. 소득분배 동향

■ 최근 통계청은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하였음.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은 2인 가구 이상을 중심으로 한 것임.(통계청, 5. 23. 보도자료).

○ 〈표 1〉을 통해,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 1분위의 소득은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소득 5분위 이상에서도 2.2%가 줄어들어, 2018년 1분기에 비해서는 분배 수준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표 1〉을 다시 보면, 통계청과 동일한 분석속에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소득 1분위층의 소득은 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소득 5분위층은 1.1%가 감소하여 2인 가구 이상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음.

- 소득 1분위층의 소득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소득 기준으로 2인 이상은 1.7%가 감소, 1인 가구 이상은 2.5%가 증가하여 역시 다른 방향을 보여 줌.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도 2인 가구 이상과 1인 가구 이상에서 전혀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1인 가구 제외 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음.

1) 가구원 수 통제에 가구균등화지수(Household equivalence scale)를 활용할 예정이며, 균등화 방식은 통계청과 분배 연구에서 활용되는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을 활용하고 있음.

〈표 1〉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19년 1/4분기)

(단위: 천 원, %, 전년 동 분기 대비)

통계청 : 2인 가구 이상	2019. 1/4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원 수	3.05명		2.39명		2.81명		3.20명		3.42명		3.42명	
가구주 연령	53.4세		63.3세		54.6세		50.2세		48.8세		50.2세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4,826.3	1.3	1,254.7	-2.5	2,843.7	4.4	4,238.7	5.0	5,863.1	4.4	9,925.0	-2.2
· 경상소득	4,802.9	1.7	1,253.7	-1.7	2,832.8	4.6	4,224.0	5.2	5,846.8	5.0	9,850.7	-1.8
- 근로소득	3,220.8	0.5	404.4	-14.5	1,533.8	1.9	2,633.0	4.1	4,116.7	6.6	7,410.9	-3.1
- 사업소득	892.2	-1.4	207.2	10.3	617.9	-2.2	961.2	3.6	1,034.2	-6.3	1,639.3	-1.9
- 재산소득	16.5	-26.0	11.1	-37.8	16.5	-8.9	14.9	-20.2	12.4	-51.9	27.8	-11.4
- 이전소득	673.4	14.2	631.0	5.6	664.6	20.2	614.9	13.6	683.5	18.4	772.8	13.8
· 공적	433.9	23.8	451.7	15.7	443.4	27.4	398.7	25.1	386.1	37.0	489.6	18.3
· 사적	239.5	0.3	179.3	-13.5	221.2	8.1	216.3	-2.8	297.4	0.6	283.2	6.9
· 비경상소득	23.4	-43.5	1.1	-90.3	10.9	-27.5	14.7	-20.9	16.3	-63.7	74.3	-37.2
비소비지출	1,078.3	8.3	286.7	-0.9	568.5	8.1	876.1	9.2	1,295.3	16.8	2,363.3	5.0
처분가능소득	3,748.0	-0.5	968.1	-3.0	2,275.2	3.6	3,362.7	4.0	4,567.7	1.4	7,561.7	-4.3
보사연 : 1인 가구 이상	2019. 1/4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원 수	2.45명		1.39명		1.87명		2.58명		3.13명		3.31명	
가구주 연령	55.2세		67.3세		58.7세		51.3세		48.9세		49.7세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3,950.3	1.6	658.0	0.9	1,797.6	1.4	3,238.7	4.8	5,017.5	4.7	9,029.5	-1.1
· 경상소득	3,925.6	2.0	656.9	2.5	1,792.2	2.0	3,224.8	4.8	5,004.7	5.2	8,939.5	-0.8
- 근로소득	2,576.9	1.2	106.7	7.7	814.8	-3.8	1,896.8	0.9	3,410.0	9.4	6,648.0	-2.0
- 사업소득	707.8	-2.5	41.9	-13.9	326.0	7.3	690.6	5.2	999.1	-6.5	1,480.0	-4.5
- 재산소득	14.3	-24.7	5.2	-47.1	13.0	-10.2	13.2	-27.4	13.4	-39.0	26.4	-13.8
- 이전소득	626.6	12.2	503.0	4.2	638.4	7.8	624.1	19.5	582.2	5.7	785.1	21.6
· 공적	393.2	21.5	334.8	12.1	404.1	17.0	391.0	23.7	338.0	18.0	497.7	33.7
· 사적	233.5	-0.6	168.2	-8.7	234.4	-5.1	233.1	13.1	244.2	-7.6	287.4	5.2
· 비경상소득	24.7	-35.8	1.1	-90.8	5.4	-66.7	13.9	-6.3	12.8	-60.2	89.9	-23.4
비소비지출	898.3	9.9	163.1	8.2	367.6	3.9	674.2	11.4	1,104.9	13.8	2,179.2	8.8
처분가능소득	3,052.0	-0.6	494.9	-1.4	1,429.9	0.7	2,564.5	3.2	3,912.6	2.5	6,850.3	-3.9

주: 1) 분위 구분에 있어 프로그램상 차이로 각 분위별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분위 구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2019년 1분기.

■ 두 번째로 가구원 수를 통제하여 분석할 경우(가구균등화지수 활용), 통계청 자료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 가구균등화지수와 1인 가구가 포함될 경우의 각 분위별 변화를 보면 소득 1분위의 소득은 0.4%가 줄어들고, 처분가능소득은 0.2%가 증가함.[2] 소득 구성별로는 이전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소득에서 증감률이 음의 값을 보여 주고 있음.

〈표 2〉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19년 1/4분기,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

(단위: 천 원, %, 전년 동 분기 대비)

구분	2019. 1/4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원 수	2.45명		1.64명		2.30명		2.70명		2.86명		2.77명	
가구주 연령	55.2세		66.3세		58.1세		52.1세		49.3세		50.2세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2,701.6	1.8	751.0	-0.4	1,662.0	4.8	2,370.8	4.2	3,233.3	5.3	5,483.4	-1.8
· 경상소득	2,686.6	2.1	732.6	-0.5	1,654.3	5.3	2,363.8	5.2	3,220.6	5.4	5454.2	-1.5
- 근로소득	1804.4	0.9	221.8	-12.5	957.0	9.4	1,574.7	4.7	2,236.9	1.9	4,025.8	-2.0
- 사업소득	493.1	-1.3	123.4	-3.4	351.8	-11.2	460.6	0.6	633.1	14.5	895.4	-6.9
- 재산소득	8.6	-25.9	5.8	-26.6	6.3	-36.6	6.4	-19.3	7.3	-22.3	17.4	-24.3
- 이전소득	380.5	14.7	381.6	9.9	339.2	16.8	322.1	16.2	343.4	15.6	515.7	15.6
· 공적	237.5	26.5	255.6	20.8	211.2	29.6	201.4	33.9	199.2	24.0	319.7	26.5
· 사적	143.0	-0.6	126.0	-7.0	128.0	0.5	120.7	-4.8	144.2	5.6	195.9	1.4
· 비경상소득	15.0	-38.0	18.4	1.4	7.7	-49.1	7.1	-74.4	12.7	-23.3	29.2	-33.3
비소비지출	285.9	5.0	45.7	-7.2	130.6	13.3	219.2	7.4	340.9	15.9	691.9	-0.9
처분가능소득	2401.2	1.8	689.3	0.2	1,523.7	4.7	2,144.6	4.9	2,879.8	4.3	4,762.3	-1.6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 $\sqrt{\text{가구원 수}}$
·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경상조세 등)(Wave6 기준)
2)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사회적 현물이전 제외)
3) 공적이전지출: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4) 분위 구분에 있어 프로그램상 차이로 각 분위별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분위 구분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함, 각 소득은 균등화된 소득을 의미 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2019년 1분기.

■ 〈표 1〉과 〈표 2〉를 통해 보면, 전 가구 소득과 2분위 이상에서의 소득, 경상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은 모두 동일한 방향을 보여 주고 있음.

○ 전가구 소득 기준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2019년 1분기의 2인 이상 소득은 1.3% 증가, 1인 포함 시 1.6% 증가, 균등화 소득 기준 1.8%로 동일하게 양의 추세를 보임.

2) 참고로 통계청 발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0.4%가 증가해 1인 가구 포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소득 3분위를 기준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2019년 1분기의 2인 이상 소득은 5.0% 증가, 1인 포함 시 4.8% 증가, 균등화 소득 기준 4.2%로 역시 유사한 추세를 보임.

○ 반면에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2019년 1분기의 2인 이상 소득은 2.5% 감소, 1인 포함 시 0.9% 증가, 균등화 소득 기준 0.4% 감소로 전체 소득 혹은 타 분위와 양상이 다름.

■ 위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음. 연령별로 보면, 34세 이하 가구주에서만 근로 및 사업소득이 증가(통계청 방식, 2인 이상 9.2%, 1인 이상 42.9%)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표 3).

○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를 함께 보면, 상용직과 더불어 일용직 등에서 1인 가구 추가 시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즉 청년 가구주의 일용직 등 단기성 일자리에 의한 근로소득 증가가 1분위 소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외 연령에서는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이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

- 또한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가 임시직,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소득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3〉 가구주 연령별 근로 및 사업소득 변화(2019년 1분기)

(단위: 천 원, %, 전년 동 분기 대비)

구분	근로 및 사업소득		
	통계청 방식(2인 이상)	통계청 방식(1인 이상)	균등화 방식(1인 이상)
34세 이하	9.2	42.9	-4.0
35~49세	-5.6	-24.8	-11.0
50~64세	-4.5	-5.8	-2.7
65세 이상	-23.6	-5.8	-15.0

주: 1) 분위 구분에 있어 프로그램상 차이로 각 분위별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2019년 1분기.

■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보면, 현재와 같이 2인 가구 이상만을 기준으로 통계 결과가 발표될 경우, 소득 1분위의 특성을 분명히 보여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1인 가구가 포함되어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나. 1인 가구 포함 가구 특성[3)]

■ 소득 분위별, 특히 소득 1분위 가구의 특성은 어떨까. 가구주 기준으로 보면, 먼저 가구주 연령에서 소득 1분위의 평균연령이 다른 분위에 비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득 1분위 가구주 평균연령은 '2017년 1분기 67.3세→2018년 1분기 67.9세→2019년 1분기 67.3세'로 고령층이었음.

- 반면에 소득 5분위 가구주 평균연령은 2017년 1분기 48.0세에서 2019년 1분기 49.7세로 소득1분위와 큰 차이를 보임.

〈표 4〉 분위별 가구주 연령 분포(1인 가구 이상)

(단위: 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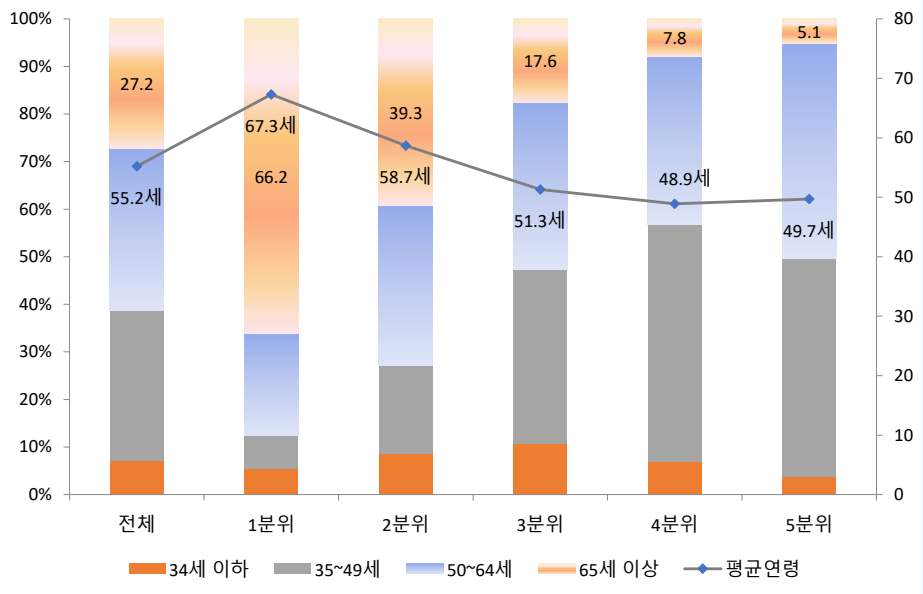
구분	2017년 1분기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체	53.7	8.4	36.2	29.1	26.3
1분위	67.3	3.6	7.9	20.7	67.8
· ~ 10% 미만	68.8	2.6	6.4	19.0	71.9
· 10 ~ 20% 미만	65.8	4.7	9.3	22.3	63.8
2분위	55.9	12.1	22.3	30.0	35.6
3분위	50.4	12.9	38.7	31.3	17.2
4분위	47.0	8.5	56.7	28.9	5.9
5분위	48.0	4.8	55.4	34.5	5.3
구분	2018년 1분기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체	54.7	8.1	32.6	32.2	27.2
1분위	67.9	5.5	5.6	19.2	69.7
· ~ 10% 미만	69.2	5.1	5.0	18.1	71.8
· 10 ~ 20% 미만	66.6	5.9	6.3	20.2	67.6
2분위	57.6	10.1	19.4	32.4	38.2
3분위	50.6	12.1	39.1	31.9	17.0
4분위	48.5	7.6	50.3	34.5	7.6
5분위	48.8	4.9	48.4	42.9	3.7
구분	2019년 1분기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체	55.2	7.1	31.6	34.2	27.2
1분위	67.3	5.5	7.0	21.4	66.2
· ~ 10% 미만	67.7	6.1	7.2	20.6	66.0
· 10 ~ 20% 미만	67.0	4.8	6.7	22.1	66.4
2분위	58.7	8.6	18.6	33.5	39.3
3분위	51.3	10.8	36.6	35.0	17.6
4분위	48.9	6.9	49.8	35.5	7.8
5분위	49.7	3.7	45.9	45.3	5.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3) 이하에서는 소득 1분위 가구의 가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분위 구분 방식(표1 참조)으로 1인 가구를 추가하여 분석함.

[그림 1] 2019년 1/4분기 대비 소득분위별 가구주 평균연령 및 가구주 연령 분포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2019년 1분기.

○ 가구주 연령 분포를 보더라도 소득 1분위의 경우 65세 이상 비율이 2017년 1분기 67.8%, 2018년 1분기 69.7%, 2019년 1분기 66.2%로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 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층에 65세 이상 노인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음.
- 소득 하위 0~10% 미만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1분기 평균연령은 67.7세로, 분포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66.0%에 이름. 이들 가구주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보면, 소득 1분위의 대부분은 실업·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1분위 실업 및 비경제활동 비율: 2017년 1분기 74.5%→2018년 1분기 80.2%→2019년 1분기 77.0%.

- 소득 1분위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동 분위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18년 1분기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이 1분위 소득 하락의 원인 중 하나임을 추정할 수 있음.

○ 2019년 1분기에 소득 1분위 소득이 소폭이지만 증가할 수 있었던 데는 서비스 종사자 증가로 임시 및 일용직의 비율이 2017년 1분기 수준은 아니지만 2018년 1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표 5〉 분위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별 분포(1인 가구 이상)

(단위: %)

구분	2017년 1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실업·비생활
전체	38.8	12.1	4.8	3.3	13.7	-	1.5	25.8
1분위	1.5	13.1	5.5	-	4.3	-	1.1	74.5
· ~ 10% 미만	0.6	9.9	2.1	-	2.1	-	0.4	85.0
· 10 ~ 20% 미만	2.4	16.4	8.9	-	6.5	-	1.8	64.1
2분위	20.6	21.7	8.2	1.8	16.4	-	2.3	29.0
3분위	41.4	14.9	6.1	4.3	17.4	-	1.0	15.0
4분위	57.7	8.0	2.3	5.7	17.6	-	2.2	6.5
5분위	72.8	2.5	2.0	4.8	13.0	-	0.9	4.0
구분	2018년 1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실업·비생활
전체	38.7	9.7	4.3	4.6	12.7	0.1	1.3	28.7
1분위	1.2	8.4	4.1	0.3	5.5	-	0.4	80.2
· ~ 10% 미만	0.6	4.8	2.1	0.2	2.6	-	0.1	89.7
· 10 ~ 20% 미만	1.9	12.0	6.2	0.3	8.4	-	0.6	70.7
2분위	20.6	17.3	9.3	1.3	13.1	-	1.7	36.6
3분위	43.6	13.5	4.5	5.6	17.0	0.2	1.0	14.7
4분위	55.6	5.7	2.7	8.5	17.8	-	1.8	7.9
5분위	72.4	3.5	1.0	7.4	10.2	-	1.4	4.2
구분	2019년 1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실업·비생활
전체	38.9	10.7	3.9	5.0	12.0	0.0	1.4	28.0
1분위	1.2	11.4	4.8	0.4	5.2	-	0.1	77.0
· ~ 10% 미만	0.2	6.7	4.0	-	2.8	-	0.1	86.2
· 10 ~ 20% 미만	2.1	16.1	5.6	0.8	7.6	-	0.1	67.8
2분위	20.5	18.9	7.6	2.2	15.4	-	0.9	34.6
3분위	43.2	13.4	4.6	5.4	16.2	-	1.6	15.7
4분위	59.0	7.0	1.9	8.2	14.8	0.2	1.6	7.3
5분위	70.7	3.0	0.8	8.6	8.4	0.0	3.0	5.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 다음으로 1인 가구가 포함된 공적이전소득 급여 종류별 수준이 지난 3년간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보면, 소득 1분위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여 수준이 증가하고 있었음.

○ 소득 1분위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2017년 1분기 13만 6800원에서 2019년 1분기 16만 2300원으로 18.6%(2018년 1분기 대비는 15.1%) 증가.

-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장애연금 및 수당 등이 포함된 사회수혜금은 2017년 1분기 6만 3700원에서 2019년 1분기 7만 1000원으로 11.5%(2018년 1분기 대비는 16.0%)가 증가해 저소득 혹은 빈곤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시장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일정 부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1분위에 노인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6〉 전 가구 및 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급여별 수준(1인 가구 이상)

(단위: 월평균, 천 원)

구분	2017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전체	142.2	51.4	58.5	12.1	40.7
1분위	82.7	136.8	63.7	16.0	0
· ~ 10%미만	52.1	140.7	43.1	12.4	0
· 10 ~ 20% 미만	113.1	133.0	84.2	19.7	0
2분위	162.3	62.0	69.0	17.0	2.3
3분위	202.0	31.9	66.0	15.2	19.5
4분위	133.1	15.7	63.6	9.9	47.9
5분위	130.6	10.8	30.4	2.6	133.5
구분	2018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전체	154.7	54.1	53.0	13.5	48.4
1분위	83.2	141.0	61.2	13.3	0.1
· ~ 10%미만	43.1	141.7	33.4	7.2	0
· 10 ~ 20% 미만	123.2	140.3	88.9	19.3	0.1
2분위	172.8	74.3	78.3	18.3	1.7
3분위	200.3	31.7	50.0	18.0	16.2
4분위	156.2	14.0	50.1	10.8	55.4
5분위	161.1	10.0	25.4	7.0	168.6
구분	2019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전체	176.3	67.7	81.7	12.8	54.6
1분위	86.2	162.3	71.0	15.3	0
· ~ 10%미만	47.1	151.8	41.7	9.2	0
· 10 ~ 20% 미만	125.3	172.8	100.4	21.5	0
2분위	189.3	96.0	97.0	19.8	2.0
3분위	226.0	41.7	90.7	12.9	19.7
4분위	156.5	23.0	82.5	10.8	65.2
5분위	223.5	15.6	67.5	5.3	185.8

주: 1) 분위 구분에 있어 프로그램상 차이로 각 분위별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3. 함의

■ 지금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2018~2019년 1분기를 중심으로 소득 변화와 가구 특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음.

○ 무엇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인 가구 이상 통계의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1인 가구가 포함된 전 가구의 소득 동향과 가구주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한 특징과 함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특징으로는 첫째, 소득 1분위 계층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이었음. 연도별, 분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65세 이상은 65~70%대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대의 중고령층(50~64세), 10%대의 49세 이하 가구주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분배 측면에서 소득 1분위 계층의 대부분을 점하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 혹은 대책이 다르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둘째, 2019년 1분기는 2018년 1분기에 비해 소득 1분위에서 소폭이지만 소득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표 1, 표 2 참조)되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소득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노인 일자리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을 통해 하위 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이들 계층의 소득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소득 1분위층은 대부분 노인이며, 주된 경제활동 상태 역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 없이는 소득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이 소득 1분위 계층을 두 개의 특징적 대상으로 구분해 볼 때, 각 특성에 맞추어 사회안전망 대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발표 자료에[4] 따르면, 2019년 국가재정전략 회의 결과 소득 1분위층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먼저 제외하고, 근로연령층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공제제도 등을 도입할 것으로 보도됨.

○ 하지만 소득 1분위의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정전략 회의 결과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은 제외된 측면이 있음. 아직 저소득과 빈곤에 놓여 있는 노인계층을 포함하기에는 부족하며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청와대.(2019).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2세션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 청와대 홈페이지 www1.president.go.kr/articles/6309 2019.6.3.인출.

○ 이 외에 20~30%에 해당되는 중고령층과 49세 미만 근로연령층의 경우 시장과 공공을 통해 일자리 제공,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이 함께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역시 이들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5)]

○ 통계 제공에 있어서도 국민 알권리 보장과 정확한 소득통계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앞으로 1인 가구가 포함된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통계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음.

5) 근로장려세제가 확대 개편될 예정이지만, 대상자 포괄성(자영업자, 일하는 노인, 청년 등)과 급여 지급 방안 등에서 위기 상황에 즉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집필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
문의 044) 287-82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kihasa.re.kr